

# 광주시립창극단 교류공연 '천변만화'

국립민속국악원, 22일 예원당서 기악 합주·창작 창극·한국무용 등 다채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광주시립창극단 교류공연 '천변만화(千變萬化)'를 개최한다.

공연은 국립민속국악원과 광주시립창극단 간의 우수작품 교류를 통해 다양한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문화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 교류공연 '천변만화(千變萬化)'는 서영호류 거문고 산조를 바탕으로 한 기악 합주곡 '희로애락(喜怒哀樂)'으로 공연의 서막을 올린다.

이어 창작 창극 '로미오와 줄리엣'과 한국무용 '태평무', 단막 창극 '광한투' 그리고 타악 합주곡 '내복을 위한 신명 판타지 취(吹)와 타(打)'로 공연을 장식한다.

첫 무대인 '희로애락(喜怒哀樂)'은 거문고를 중심으로 현악기와 관악기의 조화를 통해 기쁨과 노여움, 슬픔, 즐거움을 한국적인 멋과 흥으로 표현했으며, 두 번째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양 고전 원작을 한국 전통 창극으로 재탄생시킨 작품으로, 광주시립창극단만의 색깔을 입혀 선보이고 있다.

세 번째 '태평무(太平舞)'는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된 한국의 대표적 전통춤으로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염원하는 왕과 왕비의 마음을 담고 있으며, 단막 창극 '광한투'는 춘향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광주시립창극단 교류공연 '천변만화(千變萬化)'를 개최한다.

가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오월 단오날 광한투에서 그네를 뛰며 놀고 있는 춘향을 발견한 이도령이 방자를 시켜 춘향을 불러오는 대목을 그린다.

마지막 타악 합주곡 '내복을 위한 신명 판타지 취(吹)와 타(打)'는 고석진 명인이 북소리를 통해 사계절의 변화를 표현하며, 대북과 타

악기의 조화를 통해 신명나는 무대를 선사한다.

한편 교류공연 '천변만화(千變萬化)'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선보이는 본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누리집(www.namwon.gugak.go.kr)이나 전화예매(063-620-2329)가 가능하고 8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 故야천 하관수 선생 추모유작전

고창출신 서예가 작품세계 조명... 고창문화의전당서 21~27일 개최

고창출신 서예가 故야천 하관수 선생의 추모유작전이 오는 21~27일 고창문화의전당 전시장에서 열린다.

하관수선생의 1주기를 맞아 그를 아끼고 흠모했던 지인들과 제자들이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고창문화관광재단이 힘을 보탤다.

음악교사로 30년, 서예인으로 50년간 활동하며 창작한 서예, 문인화, 전각작품 전시를 통해 고인의 작품세계를 조명한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전봉준 장군 동상 '義의 깃발아래 깃발글씨 중 除暴救民(제폭구민)'이 그의 마지막 유작이기도 하다.

또한 문학, 음악, 미술, 농악, 국궁, 도예, 장애인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많은 예술인들과 지역사회 공동체들과의 인연으로 남겨진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상영한다.

이번 추모유작전에 부치는 글에서 조국현 추진위원장은 "선생께서는 올곧고 청아한



예인의 짧고 굵은 삶을 지향,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작품을 남기신 분이다"고 고인을 기억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은 늘리고"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머그(mug) 담아머그 챌린지 동참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머그(mug) 담아머그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기후 위기 인식 확산과 저탄소 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사무실 내 일회용품 컵의 사용을 감축하고, 다회용품 컵의 사용을 일상화하고자 추진됐다.

재단은 전남문화재단 김은영 대표이사의 후속 주자로 주목됐다. 이에 사무실 내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사진을 SNS에 게재한 후, 다음에 참여할 기관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을 추천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은 늘리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 3월 23일 WWF(세계자연기금)가 주최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17



개 지역 문화재단의 협동 ESG 캠페인인 1시간 소등 활동 '어스아워(Earth Hour) 캠페인'에도 참여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 김제 동헌서 펼쳐지는 가족뮤지컬 '좌충우돌 의적공주'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첫 공연 열려... 9월 21일까지 10회 진행

김제 동헌에서 펼쳐지는 2024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인 '좌충우돌 의적공주'가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 김제동헌 내아에서 2024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첫 공연을 개최했다. 가족뮤지컬 '좌충우돌 의적공주'는 김제 동헌 내아에서 벌어지는 공주 결혼 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뮤지컬공연으로, 지난 15일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공연을 진행한다.

또한 공연 전 체험 프로그램(오후 3~4시)을 통해 시민들과 관람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돼 재미를 더했다. 상설공연은 연극, 무용, 비보이 등 다양한 장르 퍼포먼스와 함께 진행되어 전통 예술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우리 고유의 문화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담겨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과 예술집단 연합이 주관하는 상설공연은 오는 9월 21일까지 총 10회에



김제동헌 내아에서 지난 15일 오후 4시 2024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첫 공연을 개최했다.

갈쳐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김제동헌 내아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공연 날짜는 이날 오는 22일, 7월(13, 20, 27), 8월(17, 24), 9월(7, 14, 21)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관람료는 만원이다. 김제시민, 10인 이상 단체, 문화릴레이 관람객에게는 은누리상품권 5,000원이 환급된다.

한편 지난 15일 개막한 '좌충우돌 의적공주' 개막 공연에서 170여명이 넘는 관객들이 객석을 모두 채웠고, 유료관객 100석이 전석 매진됐다. 티켓 예매는 현장예매, 온라인예매 모두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공연 문의는 전화(063-547-1237)로 하면 된다.

/김제=곽도태 기자

# 전북세일센터, 특화형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정희 원장)는 특화형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에 근거해 경력단절 위기 요인별로 맞춤형 서비스 및 조직문화개선에 기여해 여성의 취업연계와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오는 20일부터 노무사, 심리상담사, 경영컨설턴트 등 전문가와 함께하는 여성고용유지를 위한 1:1 맞춤형 상담과, 조직문화개선 코칭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여성고용유지를 위한 1:1 상담은 도내 재직 여성 및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노무고충, 모성보호 등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고용유지, 취

업역량강화 및 경제활동 참여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재직·구직 여성들의 경력개발 및 가족 내 갈등, 고용 불안과 고용차별 등 개인별 유형에 따라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서비스 진행과정은 전문가와 강점진단·심리검사 등 사전검사를 거쳐 모성사유, 경력개발, 심리고충, 노무이슈 등 유형별·맞춤형 상담이 진행된다.

조직문화개선 코칭은 개인 및 조직의 소통을 위해 공동의 목표를 찾고 경력개발 욕구 확대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동일 직무·동일 기업체 재직자 또는 유사한 경력개발 요구를 가진 개인을 그룹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조직문화개선 코칭에 참여하는 기업은 전북여성가족재단과의 협약 체결, 재직자 워크숍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조직문화개선 코칭 지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재직여성 및 중간관리자 등으로 총 4개 그룹을 모집하며, 그룹별 4~6명의 인원으로 최대 14회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진정희 원장은 "특화형 경력단절예방사업을 통해 취업 연계 및 안정적인 고용유지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력단절예방 심층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에 특화된 전문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https://www.jbwf.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063239@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변산반도 해안사구 복원활동 펼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19일 부안 변산반도 해안사구 복원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임직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목적으로 생태계 보전 활동을 실천하고, 환경보호 인식을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

사장 교영호)가 주관했으며, 재단과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이 함께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변산반도 맞춤형 해안사구 복원을 위한 모래포집기 시범 설치 활동을 했다.

재단은 해안 모래유실 방지, 사구 생태계의 정상화를 통한 사구식물 유입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탄소흡수 기능 강화 등 해안사구 복원에 앞장섰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재단은 ESG 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끊임없이 제기되는 생태계 문제에 대해 지역과 지구를 위한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여성가족재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 지원 나서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정정희)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 지원에 나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시 최대 2년)동안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단축근로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주당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 그 이상은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 지원 상한액 이상의 급여 공백을 채우기 위해 2개월간 20만원 지원과, 제도 사용 중 육아휴직 및 단

축근무 대상자가 해당 업무 대행자의 멘토로서 업무를 인수인계할 시 멘토수당 1회당 12만 원을 지원한다.

두 지원 모두 도내 중소기업·중견기업 10개사 대상이며, 수당 지급 대상은 중복 없이 지원된다.

근로시간 단축 수당 지원사업은 오는 20일부터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전북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jbwf.or.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jbwf.or.kr) 또는 취업지원팀(063-254-38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